

【비평논문】

신청사와 만주학

- 피터 C 퍼듀 지음, 공원국 옮김 『중국의 서진 : 청(淸)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도서출판 길, 2012(Peter C. Perdue, *China Marches West :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김 선 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 16일 <해외 저명 만주학 전문가 초청강연 시리즈>의 두 번째 강연자로 예일대학 사학과 과의 피터 퍼듀 교수를 초청했다. 이 날 퍼듀 교수는 “대륙의 茶 무역로에 관한 만문자료”를 주제로 자신의 최근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자신의 저서 『중국의 서진 : 청(淸)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을 중심으로 청중들과 토론했다.

이 글은 미국학계의 대표적인 청사 전문가인 퍼듀 교수의 연구를 신청사 학과와 만주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의 서진』을 신청사 학과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연구성과를 특정 시기에 등장한 연구사의 흐름 속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으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소개한다. 청의 중앙유라시아 원정에서 보이는 폭력과 정복, 이후의 역사 서술에 나타나는 결정론적 시각, 상업과 경제의 측면에서 전개된 내지와 변경의 결합, 그리고 세계사 속의 청사의 위치를 중심으로 책의 핵심적 주장을 정리한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중국 제국담론”이 『중국의 서진』에서 보이는 청제국의 모습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이 책의 비판적 시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퍼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의 연구에서 만주어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하고, 한국의 만주학 연구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신청사 학파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지면을 통해 이미 소개하였듯이, 신청사 학파는 1990년대 말부터 미국학계를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청사 연구경향을 가리킨다.¹⁾ 신청사 학파로 분류되는 연구자들 사이에 관점과 해석의 측면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하나의 뚜렷한 연구경향을 형성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기존의 청사 연구와 그 안에 깃든 가설에 대한 이들의 비판이 미국학계를 넘어 중국학계와 한국학계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청사 학파는 하나의 중요한 학설로 다루어질 만하다.

반복의 번잡함을 무릅쓰고 다시 개괄한다면, 신청사 학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의 통치집단인 만주족에 대한 관심과 한화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청사로 분류되는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인과 중국문화는 단일하고 균질적이라는 전제, 또한 중국을 정복한 외래 집단과 중국의 이웃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방식과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해왔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만주족은 유교적 가치관에 완전히 동화되었으며 그 때문에 중국을 성공적으로 통치했다는 한화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사 학파는 만주족의 정체성은 한족문화와의 오랜 접촉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며 특히 청의 황제들은 문화적으로 변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만주족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몽골, 회족, 묘족 등 다른 비한족 집단에 대한 관심으

1) 윤영인, 「만주족의 정체성과 청대사 연구」, 『만주연구』 제5집 (2006년) : 파멜라 크로슬리,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 김선민,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사총』 74 (2011년).

로 이어졌고 나아가 이들이 거주하는 다양한 변경지역에 대한 연구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청과 내륙아시아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이 강조되었고, 한문 이외의 다양한 언어, 특히 만주어와 몽골어 자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비한족과 이들이 거주하는 변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또한 청이 지닌 팽창주의적 제국으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퍼듀 교수의 연구가 신청사 학파의 주장과 공명한다는 것은 미국학계의 여러 연구자들이 그를 신청사 학파의 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²⁾ 그가 “만주식 식민주의(Manchu Colonialism)”를 주제로 삼은 한 학술잡지의 특집호에서 총론을 집필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³⁾ 정작 퍼듀 교수 본인은 신청사 대신 “알타이 학파”라는 용어로 만주족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연구경향을 설명한다(『중국의 서진』, 689-690쪽).⁴⁾ 그에 따르면 알타이 학파는 청의 유라시아적 기원을 강조하면서 청의 만주족 엘리트들이 피통치자인 한족과의 차별성을 의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중시한다. 이들은 또한 만주족 엘리트들이 제국의 주변부, 즉 몽골, 신강, 티베트 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음에 주목하는데, 청의 변경지역 통치에 대한 이들의

2) Ruth W. Dunnell and James A. Millward, “Introduction,” James A. Millward et al. eds., *New Qing Imperial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4), pp. 1-14; Joanna Waley-Cohen,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winter 2004), pp. 193-206; 파멜라 크로슬리, 「‘신’청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3) Peter C. Perdue, “Comparing Empires: Manchu Colonialism,”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 2(1998), pp. 255-262. 이 특집호에 포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Peter C. Perdue, “Boundaries, Maps, and Movement: Chinese, Russian, and Mongolian Empires in Early Modern Central Eurasia”; Nicola Di Cosmo, “Qing Colonial Administration in Inner Asia”; Dorothea Heuschert, “Legal Pluralism in the Qing Empire: Manchu Legislation for the Mongols”; Elliot Sperling, “Awe and Submission: A Tibetan Aristocrat at the Court of Qianlong”; Joanna Waley-Cohen, “Religion, War, and Empire-Building in Eighteenth-Century China”; Emma Jinhua Teng, “An Island of Women: The Discourse of Gender in Qing Travel Writing about Taiwan”; Michael Adas, “Imperialism and Coloni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4) 그러나 미국학계에서 처음으로 “알타이 학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화의 가설에 도전하며 청대의 특징으로 만주족다움(Manchuness)를 강조한 학자들”을 가리킨 것은 마크 엘리엇(Mark Elliott)이었다. 마크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푸른역사, 2009년), pp. 73-78.

시각은 바로 “만주식 식민주의”라는 문제의식에 잘 나타나 있다. 만주족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청사를 이해하려는 연구경향은 이후 알타이 학파보다는 신청사 학파라는 용어로 널리 불리게 되었다.

신청사 학파의 주장은 중국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청사 학파의 주장을 분석한 여러 중국 연구자 가운데 특히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의 리우 샤오멍(柳小萌) 교수의 주장을 소개할 수 있다. 리우 교수는 중국의 대표적인 청사 연구자로서 팔기제도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으며, 무엇보다 만주학센터 주최 <해외저명 만주학 전문가 초청강연 시리즈>의 첫 번째 강연자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⁵⁾ 리우 교수의 초청강연은 “청대 북경의 소수민족”을 주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후 청중과의 토론 과정에서 역시 신청사 학파의 주장이 주요한 주제로 제기되었다. 리우 교수의 비판은 신청사 학파의 특징을 부각시켜 중국학계와 미국학계의 청사 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선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⁶⁾

리우 교수는 먼저 미국학계의 청사 연구에 앞서 중국학계와 일본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청사·만주족 역사·팔기제도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신청사의 독창적인 지점은 청조 지배층이 가진 만주족의 특징을 강조한다거나 만문 사료를 중시한다는 점이 아니라 한족중심론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지적한다. 리우 교수는 신청사 학파가 민족성[族群] 이론을 통해 만주족 특유의 팔기제도를 분석하고, 청의 제국 형성과정에 만주족이 끼친 영향을 강조하고, 나아가 세계사적·비교사적 관점에서 제국, 현대화, 식민주의, 신분 문제 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지점에서 이들의 주장에 반박한다. 먼저 청초부터 통용된 旗人, 滿洲, 滿人과 청 말에 새롭게 등장한 旗族, 또한 중국에서 전통적

5) 리우 교수의 방문은 그의 저서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년)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이훈·이선에·김선민 옮김, 푸른역사, 2013년) 출판된 것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

6) 신청사 학파에 대한 리우 교수의 견해는 그가 글로 발표한 비평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柳小萌, 『清朝史中的八旗研究』, 『清史研究』 2010年 2期.

으로 민족집단[族類]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滿人, 漢人, 蒙人과 근대적인 민족개념인 滿族이 신청사 학파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불분명한 개념을 바탕으로 민족성을 논하는 한 진전된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우 교수의 비판은 무엇보다 이들이 만주족의 정체성을 한족과 대비시키고 팔기제도를 폐쇄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있다. “만한대립”을 강조하는 신청사의 주장과 달리 청은 명의 제도를 계승한 측면[淸承明制]이 강했고 旗人과 民人은 상호융합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리우 교수는 신청사 학파가 근본적으로 타자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중국사 연구는 중국적 특징이 분명한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외래의 이론과 개념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신청사 학파의 비판의식이 과도해져 청초가 중국사의 일부임을 부정하거나 만한융합을 만한대립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만주족의 특징을 강조한 나머지 한족과 漢文化의 주도적 역할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분명히 경계한다.

리우 교수의 비판은 『중국의 서진』의 핵심적인 주장을 파악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이 책은 한족과 구별되는 만주족의 특징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청의 정복을 중국의 팽창과 동일시해온 기존의 역사서술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우 교수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의 신강 지배를 중국사의 필연적인 팽창과정으로 간주하는 대신 정주제국과 유목세력의 경쟁과정에서 나타난 우연적인 결과였다고 파악하는 『중국의 서진』은 리우 교수를 포함한 중국 연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중국학계에서는 대체로 현재 중국의 영토적·문화적 경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몽골과 신강의 정복을 중앙유라시아 민족들이 다민족국가 중국으로 통일된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퍼듀 교수의 연구가 신청사 학파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의 『중국의 서진』에는 한화론이나 중국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그 이상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은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청의 팽창이 폭력적이고 우연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이 원정의 역사가 18세기 청 황실의 역사가들로부터 20세기 근대 민족주의 역사가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역사 서술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조망한다. 『중국의 서진』의 탁월한 성과는 무엇보다 청의 팽창을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무역의 측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청의 군사적 팽창이 중국 내지의 상업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 사회경제사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퍼듀 교수 본인이 밝혔듯이 그는 “청의 형성에 군사적 측면이 중요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상업적·문화적 통합만을 강조하는 다른 연구들과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697쪽). 신청사 학파의 연구가 대체로 중앙정치, 군사활동, 민족 정체성과 문화의 측면에 주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서진』의 종합적이고 거시적 안목은 더욱 분명해진다.

정복의 역사

『중국의 서진』은 모두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중앙유라시아 국가들의 형성”은 청의 유라시아 정복을 설명하기 위한 공간적·시간적 배경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유라시아의 다양한 생태와 불분명한 경계, 초원 유목세력들의 끊임없는 이동과 경쟁, 경쟁자를 제압하고 제국의 안보를 확보해야 했던 중국의 명과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국의 전략, 그리고 청의 등장과 다양한 몽골세력과의 관계를 개괄한다. 제2부 “세력 경합”은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에 이르는 청의 100여년 준가르 공략의 역사이다. 강희제의 갈단 공격과 이를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 준가르를 제압하기 위한 옹정제의 티베트 진출과 점령, 그리고 건륭제의 준가르 초멸에 이르는 전쟁의 과정이 상술되어 있다. 제3부 “제국의 경제적 기반”은 준가르와의 전투에서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청의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둔전과 이주민을 통해 현지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상인과 화폐를 서북 변경의 시장으로 유인하는 상업정책과 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대 조공무역의 구체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제4부 “변경의 확정”은 청의 지도 제작과 역사 서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청의 황제들은 지도를 통해 팽창된 제국의 판도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으며, 불확실했던 준가르 공략의 과정을 역사적 필연으로 재구성했음을 분석한다. 제5부 “유산의 그 함의”는 이 책의 결론이다.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이 19세기 민족주의 역사학에 의해 중국의 신강 정복으로 재기억되는 과정을 지적하고, 또한 중국사의 다양한 담론과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청대사 연구사를 개괄한다.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의 폭력성은 이 책의 제2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1690년에 이르러 청의 권위에 순순히 복종하지 않는 준가르 세력을 강희제는 막대한 비용을 무릅쓰고 직접 정벌하고자 했다. 황제의 군사들은 빗속에서 위험한 산맥을 횡단하고 우박을 맞으며 우물을 파고 시체 썩은 웅덩이 물을 마셔야 했고, 준가르 원정의 총비용으로 한 해 국고의 6%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208-210쪽). 황제의 관료들은 엄청난 원정비용과 황제의 부채로 인한 불안정을 염려하여 원정에 반대했지만 강희제는 친정을 감행했다. 갈단의 사망을 확인한 후 강희제는 시신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갈단의 뼈를 부수어 연병장에 뿌림으로써 적의 영혼까지 완전히 말소했다. 갈단이라는 이질적이고 반역적인 존재를 인간계와 우주계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261-264쪽).

웅정년간에도 몽골과 티베트에 대한 청의 폭력적인 진압은 계속되었다. 1724년 청의 지배에 저항한 코코로노(青海)의 왕공 룽짱 단진을 진압하러 파견된 청군은 라마승들과 촌락에 보복했다. 수백 명의 민간인이 죽고 150개의 촌락이 불태워졌으며 6천명의 승려가 도륙을 당했다(310-312쪽). 청에 반항하는 세력에게는 건륭제 역시 잔혹했다. 1756년 준가르의 아무르사나가 청의 지배에 반기를 들자 건륭제는 포로를 포함한 준가르인들을 모두 학살

하여 “剿滅”시킬 것을 지시했다. 독립적인 몽골세력의 가능성을 말살하기 위해 청은 준가르 국가와 민족을 제거했고 이로써 준가르 초원은 거의 완전한 인구 희박지역이 되었다. 건륭제는 다양한 민족을 포괄하는 보편군주임을 자처했지만 황제의 포용에 저항하는 세력에게는 무자비했던 것이다 (356-360쪽).

기억의 재구성

책의 제2부가 정복의 폭력적 과정을 시간적으로 서술했다면, 제4부는 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1696년 강희제의 지시로 편찬된 『親征平定朔漠方略』은 황제의 원정을 “하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사막은 영원히 일소되었고 국경은 확고해졌다. 한은 흉노를 이렇게 하지 못했고 당은 돌궐에 맞서 이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묘사했다. 갈단이 아직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희제의 친정은 뛰어난 통찰력과 성스러운 지혜와 전략적인 사고의 결합으로 찬양되었다(242-243쪽 : 586-591쪽). 갈단은 실제로 독살되거나 병사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신하들은 “황제는 갈단의 자살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는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갈단의 사망 시간을 한 달 뒤로 늦추어 황제의 원정이 전체적으로 무의미해지지 않게 조작하고, 강희제를 탁월한 군사 지도자로 찬양함으로써 친정에 소모된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했다(258-260쪽). 역사의 재구성은 건륭년간에도 계속되었다. 1770년 완성된 『平定准噶爾方略』은 몽골 부족의 항복을 모든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준가르들이 건륭제의 원정으로 마침내 진압되었다고 서술한다. 18세기 중엽 건륭제의 역사가들은 준가르의 기원과 계보를 서술하고 준가르를 청에 복속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로 배치함으로써 “몽골족을 필연적이며 본질적으로 그리

고 영원의 중국의 제국적·국민적 영역들의 일부로 그리는 향후의 모든 역사 해석의 기반을 놓았다”(608-609쪽).

제5부에서는 20세기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청의 역사를 기억하고 방식을 검토한다. 민족주의적·목적론적 시각에 입각한 현대 중국의 교과서는 청이 중국의 모든 영역을 자연스럽게 통합했으며 현대 중국은 이 공간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한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또한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은 본래 중국의 통치 하에 있던 신강을 반역자인 준가르로부터 되찾은 작업이었으며 신강의 통일은 다민족국가인 현대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강조한다(641쪽). 그러나 『중국의 서진』은 앞서 검토한 원정의 과정을 바탕으로 현대의 결정론적 역사서술을 반박한다. 청의 통치자들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규정하는대로 하나의 통합된 민족을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유라시아가 언제나 중국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다름 아닌 제국의 안보와 지역의 자급이었다(417쪽). 『중국의 서진』은 또한 청의 팽창은 이전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필연적 발전의 결과물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명과 청은 지배층의 성격이 서로 상이했고, 청은 명과 달리 중국 내지의 자원을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으며 유라시아 제국간의 외교협상에도 능숙했기 때문에 준가르 정복에 성공할 수 있었다. 청 황실의 역사가들은 청의 이러한 차이점 대신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했고 그 결과 이들은 근대 민족주의 역사가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중요한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643쪽).

청 황실 역사가들의 초원세력에 대한 평가 역시 근대 민족주의 역사서술에 영향을 끼쳤다. 청의 역사서에는 초원세력과 정주세력의 문화적 이분법이 잘 드러난다. 저항하는 독립적인 몽골세력은 원래부터 중국 땅인 곳에서 일어난 내부 반란자로 취급된다. “生” 야만인 준가르는 문명화되지 않은, 따라서 멸망시켜도 되는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청의 지배를 받아들인 “熟” 몽골부족과 분명히 구분된다(124-125쪽). 유목세력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이 근대에 이르러 더욱 정교해지면서 이들을 목적론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목세력의 정체성을 자연적, 고정적,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토의 경계 역시 자연적이며 사전에 결정된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고정된 공간에 거주하는 집단의 정체성 역시 본질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650-652쪽).

내지와 변경

청의 서북 원정을 가능하게 했던 제국의 경제적 통합은 책의 제3부에서 주로 다루어지지만, 그에 앞서 제1부에서는 먼저 명의 군사전략과 한계를 개괄하고 있다. 북방의 몽골을 제어하는 데 명이 실패한 이유는 衛所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취약성에 있었다. 명은 내지로부터 재원을 모아서 이를 변경으로 수송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는 항상 자금 부족에 시달렸다. 16세기 이전까지 명의 상업경제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가는 군수물자를 화폐로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한족 지배층은 초원의 환경에 익숙하지 못했으며 국가의 행정체제 역시 청대만큼 효율적이거나 중앙집권적이지 못했다(111-112쪽).

청은 변경의 주둔군을 부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7세기 말 강희제는 이미 장성 밖의 병사들에게 자금을 위해서 동몽골의 토지를 경작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죄수를 이주시켜 토지를 개간하게 함으로써 내지에서 변경으로 물자를 보급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옹정년간에 이르러 청은 간쑤 회량의 오아시스 지역에까지 이주를 확대했다(409-411쪽). 둔전 개발을 통한 중앙유라시아의 식민화는 오아시스 지역의 곡물생산을 늘려 군대에 공급하고 간쑤와 산시(陝西)성의 농민을 구제하고 서북지역의 인구압을 해소하여 사회적 불안을 막는 등 다각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425-426쪽). 한편 18세기 말에 이르러 간쑤 성의 화폐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은 화폐제도를 표준화하고 가격의 긴밀한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변경지대의 경제를

내지로 통합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였다. 『중국의 서진』은 청의 변경 시장이 저절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한다. 청의 변경지역에서 경제·통화정책과 군사·안보정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493-513쪽).

변경에서 청은 상업을 전쟁의 무기로 적극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경 무역이 등장했다. 청은 정복한 몽골 부족의 거주지와 내지의 교역망을 연결해야 했다. 몽골의 귀족과 승려들은 말, 가축, 모피 등을 한족 상인들과 교역하면서 점차 내지의 자본에 의존하게 되었고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갔다. 청과 준가르의 교역은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었다. 준가르는 중국 내지의 물품을 교역하여 이익을 얻었고, 청의 관리들은 이주민에 대한 지원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청에게 서북변경 무역은 이윤보다는 군사 전략의 일부였다. 변경의 탐욕스러운 민족들을 통제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에게 얼마간의 물질적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청은 대륙 무역을 유목민을 복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그 결과 변경 무역은 17-18세기 내내 번성했다(513-515쪽).

청이 초원 유목민과의 관계에서 변경무역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정형화된 이론, 즉 페어뱅크의 조공체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한다. 조공체제 모델에는 황제의 우월한 지위와 외부인들에 대한 은총을 강조하는 중국중심주의가 담겨있다. 그러나 조공은 각각의 민족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청 역시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역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교역은 순전히 안보상의 고려에서 진행되었던 반면, 준가르와의 교역은 이들을 길들이려는 목표가 주된 것이었다. 카자흐와의 교역은 상업적인 목표와 함께 말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국과의 광동무역은 전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조공을 통해 청은 다양한 집단과 광범위하게 교역할 수 있었고, 참여자들 역시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면서도 각자에게 일정한 자원을 허용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518-523쪽).

세계사 속의 청사

『중국의 서진』은 청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이 세계사적 사건임을 강조한다. 먼저 이 정복으로 이주, 무역, 행정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역사적 상상력의 공간도 확대되었다. 또한 17-18세기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의 국가들이 중앙집권화, 군사 정복, 이주, 선교사와 상인을 통해 영토를 확장해갔음을 고려할 때 청의 서북 진출은 이 시기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의 정복은 초원 유목세력의 주도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정주 농경사회의 우위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앙유라시아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다(37-38쪽).

이 가운데 청의 지도제작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도는 국가권력의 힘과 범위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제였다. 근대의 여러 국가와 제국은 모두 지도를 이용하고 새로운 지도 제작 기술을 활용했다. 프랑스의 경우 16세기부터 지도 제작을 군사작전과 민간 통치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이르러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능가하는 과학적인 지도 제작국이 되었다. 프랑스의 지도제작 기술은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에 전파되었다. 러시아, 중국, 몽골 모두 17-18세기 그들의 경쟁 시기에 지도를 생산했는데, 이 가운데 강희제는 특히 동시대 유럽의 루이 14세에 비견할 만큼 대규모로 지도 제작에 주력했다. 1717-1721년 제작된 <황여전람도>는 예수회 지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만물을 포괄하는 시야(全覽)’ 속으로 제국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도제작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통치자의 지식을 체계화·합리화하려는 장기적인 기획의 일환이었으며 이 작업은 이후 옹정제와 건륭제의 치세에도 계속되었다(567-584쪽).

“세계 속의 청을 다시 생각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중국의 서진』은 유라시아 유사성 가설과 알타이 학파를 소개한다. 후자는 앞서 소개한대로

청의 내륙아시아적 유산을 강조하는 신청사 학파를 가리킨다. 전자는 이른바 캘리포니아 학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⁷⁾ 명청시대의 사회구조와 당시 유럽의 사회경제 구조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⁸⁾ 캘리포니아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1800년까지 인구구성, 기술, 경제적 생산성, 상업 발전, 재산권, 생태적 압력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 서유럽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유럽의 산업혁명을 가져온 세 가지 요소, 즉 시장경제, 상업자본주의 기구, 에너지 혁명을 위한 기술 변화 가운데 중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학파에서 보이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과 국가권력을 간과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서진』은 청이 실제로 국가 주도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매우 우수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한다(682-695쪽).

그렇다면 19세기 이전까지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청은 왜 쇠퇴했는가? 『중국의 서진』은 그 답을 제국의 팽창이 종료된 시점, 즉 18세기 중엽부터 제국의 관료제가 효율성과 역동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말과 은은 중국의 안보와 경제에 핵심적인 두 요소였다. 서북변경에서 마지막 초원 세력을 정복한 후 청에게 말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지만 은은 여전히 필요했다. 얼마 후 영국상인이 남부 해안에 등장하자 청의 관리들은 서북에서 실시하여 성공한 정책을 남부 해안에도 적용하려 했다. 즉 허가 받은 한족 상인에게 외국인들과의 무역 독점권을 주고 대신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북과 광동의 변경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청이 서북지역에서 무역을 유지한 이유는 이윤보다는 전략적 고려가 컸기 때문에 국가는 공적 자금을 통해 무역 자금을 지원한 반면, 광동의 상인은 점차

7) 강진아, 「16~19세기 중국경제와 세계체제 - "19세기 분기론"과 "중국중심론"」, 『이화사학연구』 31(2004): 「동아시아로 다시 쓴 세계사-포머란츠와 캘리포니아학파」, 『역사비평』 82 (2008).

8) 신청사 학파가 통치 엘리트에 초점을 두고 변경을 주로 탐구한다면, 캘리포니아 학파는 경제구조에 주목하여 중심부의 경제적 발전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학파는 국가 주도의 경제적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신청사 학파는 만주족을 다수의 피통치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서진』, p. 690.

영국 상인의 선대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서북의 상인은 국가에 빚을 졌지만 광동의 상인은 영국 상인에게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또한 청은 서북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었고 이 지역의 이방인들을 내지의 경제로 효과적으로 끌어들이었지만 밀무역이 만연한 남부 해안에서는 무역을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서북의 초원 유목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던 상업정책이 남부 해안의 서양 상인에 대해서는 실패했던 것이다. 또한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중앙에 대한 지방 엘리트의 결속과 충성심이 점차 이완되었고 그 결과 청의 국가 관리 능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699-720쪽).

중국 제국 담론

중국의 근대 민족주의 역사서술의 전제, 즉 중국문화의 중심적 역할과 주변 세력의 자발적 수용은 『중국의 서진』을 비롯한 신청사 학파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와 무관하게 중국중심주의는 중국 연구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제기되는 “제국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보여주는 중국중심주의의 변주, 그리고 이를 전제로 그려진 청제국은 퍼듀 교수나 신청사 학파에서 제시하는 청제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중국의 서진』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제국의 시각으로 중국을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근래 중국의 경제적 부상
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향후 중국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중국을 제국으로 파악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조공
체제이다. 백영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마틴 자크(Martin Jacques)나 브랜들리
위맥(Brandtly Womack)과 같은 서구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조공체제를 중국이
주변세력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립한 지역질서이며 중국과 비
대칭적 관계에 있는 주변 세력들 간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

과로 파악한다. 중국은 지역질서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경지역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중화제국의 주변국가는 장기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조공체제는 제국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여겨진다.⁹⁾ 한편 루시언 파이(Lucian W. Pye), 간 양(甘陽), 자오 텡 양(趙汀陽)과 같은 문명국가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문명’을 토대로 중국의 영토와 통일국가의 특징을 설명하며 따라서 영토나 정치가 아닌 문화가 중국의 운영원리라고 강조한다. 그 결과 문명은 외부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대중화권을 형성한다고 여겨진다. ‘천하’ 개념 역시 문명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기된다. 서방의 민족이나 국가로 구성된 세계 개념과 달리 중국인의 천하관은 바깥이 없는 無外를 원칙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문화제도이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군사제국이 ‘禮’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제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⁰⁾

윌리엄 칼라한(William A. Callahan) 교수 역시 백영서 교수의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대외관계사에 관한 국제정치학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가운데 특히 데이비드 강 (David Kang)의 『중국의 부상 : 동아시아의 평화, 권력, 그리고 질서 China's Rising :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2007)은 1300년부터 1900년까지 동아시아는 유럽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서진』과 크게 대비된다. 『중국의 부상 China's Rising』은 동아시아의 국가간 체제가 유럽식의 주권국가간 국제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위계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평등주의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칼라한 교수가 지적한대로 데이비드 강은 중국과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본질화시키고 이들의 이해관계, 관념, 그리고 경계는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국의 역사와 문명이 데이비드

9) 백영서, 『에필로그 : 중화제국론의 동아시아적 의미 : 비판적 중국연구의 모색』,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창비 : 2013년), pp. 291-294.

10) 백영서, 앞의 책, pp. 295-300.

강이 상상하는 것처럼 평화롭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중화제국과 조공체제를 국제사회를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언설이 중국의 외교정책가들 사이에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 있다.¹¹⁾

중화제국의 문화적 흡수력과 관용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은 앞서 『중국의 서진』이 보여준 청 황제들의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원정의 모습과 크게 대비된다. 강희제와 건륭제는 청의 권위에 도전하는 준가르를 절멸시키기 위해 관료들의 반대와 막대한 비용을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했으며 신강을 정복한 후에는 준가르의 역사를 제국의 백성의 일부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했다. 청의 팽창은 ‘문명’이나 ‘禮’의 전파과정이지 아니라, 내지의 물자를 변경의 주둔지로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청 통치자들의 오랜 정치·외교·상업·군사 전략의 결과였다. 무엇보다 중화문명의 확산과 조공체제의 자발적 수용이라는 틀로는 청의 역사적 특징과 성취를 해명할 방법이 없다. 『중국의 서진』은 최근의 중국 제국 담론이 청의 진정한 제국으로서의 특징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만문사료의 가치

『중국의 서진』은 청사를 이해하는 데 만문사료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강희제의 원정사 『親征平定朔漠方略』은 각각 한문본과 만문본으로 간행되었는데, 한문본은 만문본을 선택적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용어선택을 비교하면 청 황실 역사가들의 정치적 의도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자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만주어 단어에 도덕적·지리적 의미를 덧입혔다. 예를 들어 만문본에서 준가르 사절과 부족들이 “여기로

11) William A. Callahan, “Sino-speak : Chinese Exceptionalism and the Politics of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1 : 1 (February 2012), pp. 33-44.

온다”(jidere)라고 한 것을 한문본은 “안으로 들어온다”(向內而歸)로 표현한다. 만문본에서 “갈단 쪽으로 전진한다”(galdan-i baru ibehe)라고 한 것이 한문본에서는 “토벌하러 가는 원정”(進討)로 번역된다. 만주어로 단순히 “오다”(jimbi)라는 말은 흔히 “歸來,” 즉 투항한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비문명적 환경에서 살던 반항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 황제에게 복속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만문본에서 “모든 몽골 민족”(uheri Monggoso)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문본에서는 “여러 몽골 변방 신하”(諸藩蒙古)로 번역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藩”이라는 용어는 만주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원래 울타리 혹은 방어막을 뜻하는 말로서 청에 충성을 맹세한 제국 변경의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592-593쪽).

만문자료의 가치는 한문본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한 문맥에서 의미의 변질을 추적할 수 있다는 비교적 단순한 측면보다 실제로 한문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퍼듀 교수는 한국에서의 초청강연에서 그 한 사례를 소개했다. 中國第一歷史檔案館이 최근 출간한 『Manja Fufure Baita-i Dangse, 清代軍機處滿文熬茶檔』¹²⁾은 모두 232건의 만문 당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740-1748년 준가르 무역 시절에 대한 국경의 주요 관리들과 軍機大臣의 보고서, 준가르 수장 갈단 체레이 달라이라마와 여러 라마들에게 보낸 편지와 복사본, 그리고 거래한 은과 교역품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청 관리들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준가르 지도자들의 친서를 담고 있는 이 귀한 자료는 만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해당 한문본보다 몽문 원본의 느낌을 더 잘 보여준다.

『중국의 서진』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듯이 준가르의 만자(Manja)의 식은 한자로 “끓인 차를 공양하는 것”(熬茶)으로 번역된다(328-342쪽). 만자의 식은 서북지역의 준가르인들과 티베트 라마승들이 사원 안에서 茶禮를 행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경전을 낭독하고 서신이나 서적을 교환하는

12) 中國 第一歷史檔案館 編, 『清代軍機處滿文熬茶檔』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年 (國家清史編纂委員會檔案叢書). 이 한문 제목은 第一歷史檔案館에서 만든 것이고 원문에는 없다.

일종의 집단적 다과회였다. 만자의식에서 준가르 사절과 라마승들이 주고받은 문서는 청의 관리들에게 몰수되어 복사본이 만들어졌고 몽골어나 티베트어로 된 것은 만주어로 번역되었다. 『熬茶檔』은 바로 준가르와 티베트의 정치·문화·경제 관계에 대한 청의 통제정책이 남긴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이지만,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는 청의 서북 변경 무역과 외교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熬茶檔』에 보이는 만자의식, 혹은 만자무역을 통해 퍼듀 교수는 청제국의 변경에서 진행된 다양한 국경 무역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만자무역을 청과 준가르의 오랜 경쟁과 충돌의 막간에 잠시 평화관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무역을 했다는 사실은 중앙유라시아 정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청과 준가르는 불교의 교리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서로 협상하는 것이 각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고, 만자무역을 통해 적어도 십여 년간은 상호 공존했다. 만자무역은 또한 청이 외교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경 무역을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퍼듀 교수는 이처럼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만자 무역을 “조공”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포괄하거나 이를 통합적인 “조공 체제”의 일부로 묘사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을 잘못 이해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청대 “조공 체제”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는 하나의 특수한 경제 관계만을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것으로 강조하여 청대 교역체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의례·경제·외교의 다양성을 간과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만주학

『熬茶檔』과 같은 만문 자료를 이용하여 청의 변경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의 정치·외교 관계에서 복합성과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퍼듀 교수의 지적은 만문 자료의 가치, 나아가 만주학의 의의를 잘 보여준다.

만주학과 관련하여 먼저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미국에서 발족한 만주 역사문화 연구회(Manchu Studies Group, <http://www.manchustudiesgroup.org/>)의 회장을 맡고 있는 마크 엘리엇 교수의 설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2010년 8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초청강연에서 그는 만주학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의한 바 있다. “만주학은 과거와 현재에 만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 가진 언어, 역사, 문화를 다루는 것으로, 만주어나 다른 언어로 쓰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엘리엇 교수가 만주학을 이렇게 유연하게 정의한 것은 이 새로운 학문분야가 광범위한 주제와 시기를 연구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함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러한 느슨한 정의로는 아시아학 전반에서 만주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¹³⁾ 그렇다면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국담론이 논의되고 조공관계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금, 한국에서 만주어와 만문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청대 만주족의 정치부터 오늘날 시버족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는 만주학의 세계에서, 만주어와 계통적으로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며 만주족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한국의 연구자들은 무엇을 묻고 답할 것인가?

한국의 만주학은 그 연구대상인 만주어, 만주족, 그리고 만주지역이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주어와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인접하며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청학서가 제작되었고 현존하는 청학서의 언어학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 만주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그러나 조선의 지식인들이 경멸하던 “女眞學”이 1667년 “清

13) 마크 엘리엇, “중심으로서의 주변 : 만주학의 미래를 위한 서언,” 2010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초청 강연.

14) 현존하는 청학서는 『八歲兒』, 『小兒論』, 『淸語老乞大』, 『三譯總解』, 『同文類解』, 『漢淸文鑑』 등 6종이다. 고통호, 「한국의 만주어 연구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1년 4월 15일.

學”으로 명칭이 바뀐 배경에는 만주족의 군사적 정복과 그에 뒤이어 수립된 청과 조선의 불평등한 위계가 놓여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만주족과 만주어는 주변 이웃이 사용한 하나의 언어 그 이상이었다. 만주어 역관, 그리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조선의 조공사절은 과거 문화적으로 열등했던 만주족에 대한 기억과 청에 복속해야 하는 조선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반청감정은 분명 근대의 민족주의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곳곳에서 발견되는 청에 대한 반감이 오늘날 한국의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현대적인 외양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청학서와 대청관계 연구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만주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문제는 더욱 선명해진다.¹⁵⁾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접점으로서의 만주지역은 만주족의 故土이자 조선왕실의 발상지였고 청과 조선이 접경하며 교류하고 충돌한 변경이었다. 1712년 청과 조선의 “邊界”을 조사하고 백두산에 세워진 정계비는 1880년대 양국이 “국경”을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20세기에 이르러 이 지역은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민족주의의 격전지가 되었고 그 기억의 역사는 중국 학계가 사용하는 “東北,” 즉 만주가 아닌 중국의 동북이라는 명칭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오늘날 이 지역은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滿族”의 고향이자 청제국의 출발점으로 새로이 기억되고 있다. 반면 滿族과 함께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청과 조선의 변경민이 아니라 국경으로 구획된 일국의 국민, 즉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만주학이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고 만주어, 만주족, 만주지역 연구가 지닌 역사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는 한, 한국의 만주학은 일본의 만선사와 중국의 만학과 같이 민족주의적·일국사적 역사인식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한국이 만주학 연구의 최적의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주어, 만주족,

15) 김선민, 「만선사, 만학, 그리고 만주학」, 『명청사연구』 38 (2012).

만주지역과 한국의 언어적, 역사적, 지리적 인접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지역이 동아시아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임을 문제로 삼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만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는 언어학, 민속학, 역사학 등 기존의 분과학문에서 다루어온 여러 가지 주제를 만주학이라는 이름으로 총칭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청제국을 구성하는 데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활동과 역할이 있었음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국사적·민족주의적 중국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신청사 학파의 문제의식, 또한 청대 변경정책의 특징을 만문 사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 제국질서의 복잡성을 찾아내려는 『중국의 서진』의 문제의식이 한국의 만주학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